

## 은혜는 한껏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 누가복음 15: 25-32

25. 맑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옆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잔치가 즐겁지 않아. . .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감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데 어떻게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순회부흥사인 스펠전 목사(1834~1892)의 일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는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설교자의 표정관리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희망에 대해 말할 때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십시오. 은혜나 감사, 영광을 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청중을 바라보되 빛나는 눈동자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평소 늘 얼굴을 징그리며 다니는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옥을 말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 ”

스펠전은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평소 얼굴이 적당하겠네.”

오죽 징그리는 얼굴로 살았으면 스펠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즐기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다 즐거운 일들이 많아서 늘 행복하게 사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런 삶을 때로는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수능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험을 보면 누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결코 선생님들이 일등 하는 학생만큼 시험을 잘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선생님에게 시험 잘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언젠가 아주 인상적인 사모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은 4살 무렵 사모가 되기로 서원한 분이었답니다. 그 시절 유치부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보여서 말이죠.

그렇게 서원한 대로 ‘사모’가 되었고, 그렇게 25년을 사모로 살았답니다. 분명히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모의 일을 즐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사모이기에 늘 은혜 받은 사람을 지어야 했고,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힘들다’ 말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5년이 지난 다음, 자신의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맘껏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은혜를 즐겨야 할 사람이 즐기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화가 납니다. 그 동생을 위하여 소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도대체 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이 너무나 틀리는 것이지요,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알았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큰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왜 큰 아들이 즐기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이지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교회에 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죽어있어? 혹은 이 교회는 살아있네?”라고 느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함께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이 즐거워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이 이렇습니다. 31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큰 아들은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글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말입니다.

### **흉을 깨는 사람!**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를 즐기지 못하고 흉을 깨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며칠 동안 계속되어왔던 말씀에 기초하면 “율법주의 적인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지요.

**자기가 한 행동만큼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큰 아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인지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지긋지긋한 고생 끝에 아버지에게 돌  
아온 아들에게 한번 베풀어 주는 잔치가 더 큰 은혜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며,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은 삶이 귀한지를 말입니다.

아버지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려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옆소 새끼라도 주  
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아들의 마음속에 늘 바라던 욕망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새끼라도 주어 벗과 즐기는 것” 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니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며 일한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꿈꾸며 바라는 일과 하는 일이 다른데 말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 은혜 안에서 즐기는 사람과 율법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무언가,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욕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면에 병든 내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예배를 보면 즐거움 기쁨이 사라진 엄숙한 예배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거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강력한 도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큰 아들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흥을 깨버린 것은, 바로 자신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기뻐하지 못하고 잔치를 즐기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먼저는 작은 아들의 삶이 자신의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동안 친밀함 보다는 옳은 행위를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베푼 은혜를 보면서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는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형제”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잔치를 즐길 수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잔치의 흥을 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 큰 아들에게 있어서 작은 아들은 “내 동생”이 아니고 “당신의 동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회중이” 기쁨에 함께 참예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즐기기를 원하신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한번쯤은 고3 자녀를 두어봤고, 그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쯤은 취업 문제를 고민해 봤고,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 때문에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애들이 못해 준다!”

다 똑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기쁨으로 인하여 작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일 때문에 작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초대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을 나누는 일을 더 오래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행했던 축하 행사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축하하기 위해서 한 일들 가운데 “축하합니다!”를 반복했나요? 아니면 축하한다고 말한 후에 서로 즐기며 놀았나요?

생일 축하가 무엇인가요? 생명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결혼기념일이 왜 의미가 있나요?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언젠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녀들의 생일을 감사할 때면, 한 달 과외비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린다고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돈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과외를 시키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즐기실 수 있나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즐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잔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잔치가 못 마땅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는 “새 술에 취해 보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안하게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무슨 이단 집단이나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들 아냐?” 제가 중국에서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중국 공산당 간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노냐고?”

술 취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에게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표현한다는 것”

가끔 TV 드라마에 보면 술을 먹으면서 책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노는 모습을 봅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놀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을 안타까워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화난 취객은 매우 공격적으로, 슬픔에 잠긴 취객은 통곡을 하고, 기뻐서 취한 사람은 행복한 듯이 행동합니다.

술은 인간의 기질대로 과장되게 행동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은혜에 취하면 하나님의 기질이 과장되게 나타나고 표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위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질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은혜가 삶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한껏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